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JAKE ATLAS

가제 : 제이크 아틀라스

저자 : Rob Lloyd Jones

출판사: Walker Books (UK), Candlewick(US)

발행일: -

분량 : -

장르 : YA 소설



손버릇이 나쁜 제이크, 천재지만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팬, 이집트로 간 두 남매의 힘겨운 탐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공부 좀 못하는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던 제이크는 이집트 한복판, 모래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먼 옛날 사람들이 신성한 무덤에 기어들어온 도굴꾼들을 잡으려고 만든 함정에 열두 살 소년이 빠져버린 것이다. 사실 제이크는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엄마아빠를 수없이 실망시키고 쌍둥이 누나인 팬과도 1년째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 하지만 하필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해외로 여행을 온 이 때에, 제이크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를 괴롭힌 그 문제가 모래구덩이에 파묻혀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이집트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크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도굴 팀의 일원이 되어 잊혀진 고대 무덤을 찾아 다녔고, 어느 섬뜩한 사이비 종교집단이 부모님을 붙잡아 가서 미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왔다. 이 모든 사태는 가족들이 히스로 공항에서 카이로 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제이크에게 주어진 아주 짧은 쇼핑 시간에 시작되고 말았다.

이집트 고대 역사 전문가인 엄마아빠가 카이로에서 함께 강의를 할 기회를 얻자 가족들은 첫 해외 휴가를 계획했다. 마침내 출발하던 날, 공항에서 식사를 해결한 후 제이크는 상점 구경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을 졸랐다. 겨우 자유시간을 얻는데 성공했지만, 티셔츠만 한 장 사서 탑승 게이트에서 만나기로 부모님과 철석같이 약속을 한 지 불과 25분만에 제이크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태블릿 컴퓨터 한 대를 몰래 훔쳐서 도망친 것이다! 제이크와 가족들을 괴롭혀온 문제가 도져버린 것이다.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제이크는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일을 떠올리면 얼른 해보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 충동은 주로 필요하지도 않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싶은 욕구로 찾아왔고, 제이크는 위험한 일을 저지르면서 심장이 터질 듯 쿵광대는 순간에만 온전히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집에서 부모님께, 심지어 경찰에게도 절대 다시는 사고 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이크는 공항에서 또 도둑질을

하고 말했다.

고대 역사학자인줄만 알았던 부모님의 놀라운 과거, 도굴꾼들과 손을 잡고 무덤을 찾아나선 가족
결국 물건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매장 관리인이 쫓아오고 진땀 나는 추격전이 시작됐다. 흠친 태블릿을 마침 근처에 있던 유모차에 슬쩍 숨겨 붙들릴 위험을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이미 무전으로 연락을 받은 공항 경찰들이 제이크를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시작됐다. 제이크가 흠친 태블릿이 자동으로 켜지더니, 어디선가 소름 끼치는 음성이 흘러나와 제이크에게 말을 걸었다. 이 목소리는 제이크의 이름도 알고, 부모님과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지도 속속들이 다 아는데다 화면에 공항 경찰의 위치까지 띄우며 제이크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겁에 질린 제이크가 누구냐고 물어도 목소리는 지시대로 따르라고 호통칠 뿐이었다. 그러나 이 목소리 덕분에, 제이크는 경찰을 피해 제시간에 탑승장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무사히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위기는 멀어진 것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가 제이크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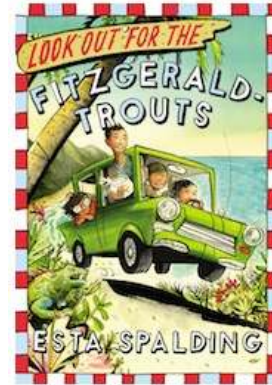
카이로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감쪽같이 어딘가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부모님을 무사히 구해낼 사람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누나 팬과 제이크 남매 밖에 없다. 두 사람은 공부 밖에 모르는 줄만 알았던 엄마아빠가 과거 자신들을 낳기 전, 이집트의 유명한 도굴 집단의 일원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아직 활동 중인 그들과 만난다. 부모님을 구출하려면, 납치범들이 원하는 대로 이집트 어딘가에 있는 고대 무덤을 찾아야 한다. 머리는 비상하지만 학교에서 따돌림을 많이 당해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버린 누나 팬, 속에서 꿈틀대는 충동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제이크는 전문 도굴꾼들과 이집트 곳곳을 헤매며 모래폭풍이과 쓰나미를 뚫고 특별한 무덤을 찾아 다닌다. 거대한 무덤 안에 숨겨진 비밀 통로, 바다 밑으로 가라 앉은 섬, 제이크 무리를 없애려는 또 다른 도굴꾼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제이크와 가족들은 다시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영화 <미션 임파서블>과 <인디애나 존스>를 떠올리게 하는 모험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롭 로이드 존스(Rob Lloyd Jones)는 대학에서 이집트 역사를 공부하고 '이집트 탐험협회'에서 수년 간 활동했다. 편집자로 일하는 출판사 'Usborne publishing'을 통해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아동 도서를 몇 권 발표했다. 데뷔작인 아동 소설 『WILD BOY』는 2014년 카네기 메달 후보에 올랐다.

제목 : LOOK OUT FOR THE FITZGERALD-TROUTS
가제 : 피츠제럴드 트라우츠 네 아이들을 찾아라
저자 : Esta Spalding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6년 5월 10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아름다운 섬 해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먹고 자며 함께 살아가는 피츠제럴드 트라우츠 네 아이들

피츠제럴드 트라우츠라는 같은 성을 가진 네 명의 아이들은 어느 자그마한 섬 해변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 킴, 키모, 피파, 토비, 이 네 명의 아이들은 집 대신 바다와 바로 눈 앞에 있는 해변에 주차해놓은 예쁜 초록색 차 안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으면서 지냈다. 밤이 되면 나이가 가장 많은 열한 살 킴은 운전석에, 몇 개월 차이로 태어난 키모는 조수석에, 주근깨가 잔뜩 난 아홉 살짜리 깡깡한 소녀 피파와 과묵한 막내 토비는 뒷좌석에 각각 자리를 잡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유난히 햇살이 밝았던 어느 날 아침, 별 문제 없이 흘러가던 아이들의 생활에 경고 등이 켜졌다.

그 날 아침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눈앞에 드러나고 말았다. 잠에서 깬 피파와 토비 머리에 끔직한 흑이 생긴 것이다. 킴도 밤새도록 불편한 의자에서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고, 킴보다 등판도 넓고 어깨도 넓은 키모 역시 의자를 조금이라도 더 뒤로 젖히려고 용을 쓰다 보니 해가 밝았다. 어린 두 동생들이 흑이 난 머리를 문지르는 모습을 보고, 특히 성깔 사나운 피파가 “누가 내 머리를 코코넛으로 때린 것 같아”라고 비명을 지르고 평소 말을 잘 안 하는 토비까지 “머리가 너무 아파”라고 울먹이는 것을 보고, 킴의 머릿속에는 깊은 고민이 자리를 틀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차 안에서 살 수 없게 된 걸까?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누가, 어떻게 다른 살 곳을 마련해 줄까? 킴은 늘 꼭 끌어 안고 잘 만큼 좋아하는 이야기책에 등장하는 가족들을 떠올렸다.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공원에서는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연날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평온한 도심 한복판, 번듯한 집에서 사는 그 가족들은 폭신한 침대에서 몸을 쭉 펴고 잠을 자겠지... 킴은 잠시 ‘우리 가족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했지만, 상상 밖에 할 수 없었다. 차에 기름을 넣고, 아이스박스에 넣을 얼음을 사고, 키모가 잡아온 물고기를 모닥불에 구워 저녁을 먹고도 집을 구해야 한다는 고민은 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차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자신만 아는 부모, 숲 속에 이글대는 이구아나 떼를 피해 편히 쉴 곳을 찾기 위한 모험

사실 네 아이들은 친남매가 아니었다. 킴과 키모는 둘 다 이 섬에서 태어났지만 엄마아빠는 달랐다. 총 두 명의 엄마와 두 명의 아빠가 네 남매를 낳았지만 누구도 책임지고 돌보려 하지 않는

바람에 아이들끼리 차에서 살기 시작한 것이다. 키모의 아버지는 어느 날 홀로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나선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른 아버지 한 명도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엄마 중에 한 명은 온통 잘난 척에 허영심이 하늘을 찌르는 가수고, 다른 한 명은 잘 나가는 주식중개인으로 온 몸에 다이아몬드를 칭칭 감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 돈 많은 엄마가 아주 가끔 아이들이 있는 곳에 들러 돈을 쥐어주고 가곤 했다. 아이들은 같이 있어 봐야 끔찍하기만 한 두 엄마와 사느니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생활이 훨씬 행복하다고 느꼈다. 나름대로 정한 규칙에 따라 밥도 챙겨 먹고, 세탁소에 빨래도 맡기고, 키모가 바다에서 잡아오는 생선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생선이 지겨워지면 저 멀리 숲에 들어가서 향기로운 과일을 따다가 먹었다. 왜 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하면서 잘 살았지만, 차가 비좁다고 느껴진 순간 킴과 키모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과연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도움이 되기보다 늘 일을 망쳐놓기만 하는 어른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 아름다운 섬에서 계속 다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찾으려 나선다.

부모에게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채 집도 없이 사는 아이들의 암울한 현실을 칙칙하게 그리는 대신 유머를 가미하여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이야기다.

<저자 소개>

에스타 스펠딩(Esta Spalding)은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 극작가로 영화, 텔레비전 작품, 산문, 시로 여러 차례 상을 수상했다.